

17C말~18C초 풍속화에 나타나는 복식에 관한 연구  
- 윤두서, 조영석 작품 중심으로 -

최 은 주

성심외국어대학 디자인학부 한국의상디자인전공 조교수

**A Study on Basic Costume Appearing in Genre Paintings  
from the Late 17th Century to the Early 18th Century :  
focused upon Works of DuSeo Yun and YoungSeok Cho**

**Eun-Joo Choi**

Assistant Professor, Dept. of Korean Clothing Design, Sungsim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Abstract**

As a result of research, the character of the general dress-costumes from the late 17th century to the early 18th century in Genre Paintings of DuSeo Yun and YoungSeok Cho is as follows.

Firstly young women wore braided hair at the back of head and married women wore hair in the style of Unjeun-mori with Gache. The length of Jeogori (Korean traditional jacket) covered waist or shortened to waist length. The width of Jeogori was suitable, because side-seam line was straight or oblique as it comes into inner line. The width of Git was enough and Mokpan-git (shape of board) and Kal-kit (shape of knife) appeared, and sometimes used other color fabric. Sleeve was narrow and mostly folded up. Chima (Korean traditional skirt) used darker color fabric than Jeogori and the width of Chima was narrow and its length was short. Sokbaji (Korean traditional underpants) shown below were narrow and its end narrower. They were barefoot or they wore Hye (Korean traditional shoes) after putting on Beoseon (Korean traditional socks).

Secondly general man's hair tie a topknot (sangtu) and put on headdress, 'Bang-lip', 'Mang-geon', hairband, 'Tang-geon' on head. The length of Jeogori became shorter from the line which covered hip to the line which covered waist. The width of Jeogori was suitable and sometimes it had a slit of side-seam line. The width of Git (neckband) was wide and the length of Git was long. 'Kal-git' appeared and it used other color fabric. The shape of sleeve was straight and narrow. They folded up their sleeves. They folded up their slacks that look like 'Jam-bang-i' and the width of slacks was not suitable, and it was narrow. Baji (Korean traditional pants) were with or without knot, worn 'Hangjeon' (ankle band). They were barefoot and wore 'Hye' or 'Jipsin' (Korean traditional straw shoes).

Thirdly a person of high birth or a low-ranked official put 'Yu-geon', 'Mang-geon', 'Gat', 'Tang-geon', 'Bok-du', 'Bok-geon', 'Whi-hang' on their head on a topknot.

They wore 'Po (Shim-ui, Jick-ryeong' Jung-chi-mak, Do-po, etc)' on Baji and Jeogori. 'Po' was long and wide, it knot with 'Se-jo-dae' (string belt) or 'Po-baek-dae' (band belt). It had a slit of sideline and 'Mu' which had or

---

본 논문은 성심외국어대학 교내 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had not or which were hard to confirm. The shape of sleeve was straight or very wide and its length was long. The width of Baji was wide and knotted with 'Hangjeon' and wore 'Beoseon' and 'Hye'.

Fourthly child's hair was short or knotted to the back of the head. The length of Jeogori reached waist line and its width was wide. It had a 'Jeogori' which had a slit of sideline. The shape of sleeve was 'Tong-su' (straight), and the length of sleeve was diverse. They put 'Baeja' on 'Jeogori'. The width of Baji was not wide. They wore them straight without or with knot, 'Hangjeon'. They were barefoot or put on 'Jipsin'.

## I. 서론

조선 후기는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의 내재적 발전요인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당시 조선 사회는 전후 복구와 함께 지식층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 실학파가 대두되었다. 한편 복식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반영되므로 실제로 조선후기의 사상계를 주도한 실학이 당시의 일상복에 영향을 주었음은 자명하며 실학자들이 추구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이용후생(利用厚生), 경세치용(經世致用)은 실용적, 현실적, 자율적인 의복의 착용을 주장하는 복식관으로 나타났으므로 그들의 복식관이 일반인의 복식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당시 생활사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풍속화는 시대적 증거로서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읽게 해주는 기록이며 풍속화에 등장한 현실의 세태와 민중 삶의 다양한 모습은 변혁기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검증해 낼 귀중한 문화 사료이므로 풍속화는 전통복식을 잘 전수하여온 서민층과 양반층의 일반복식의 착용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의 풍속화는 17, 18세기 선비 화가인 윤두서와 조영석에 의해 민중 생활도인 '속화'에서 출발하였으며 18세기 중엽 영조 시절로 내려오면서 풍속화는 민중 생활에서 사대부나 서민들의 일상을 소재로 한 경향에 이르기까지 그 표현 내용이 증폭되었고 화가라면 누구나 한번쯤 시도해 보는 관심 영역으로 위상을 굳히게 되었으며,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 등 화원 화가에 의해 예술적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풍속화 작품을 통한 복식의 고찰은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등의 풍속화 작품을 대상으로 이미 선행연구들<sup>2-4)</sup>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중 생활도에 눈 돌려 민중생활을 회화적 소재로 포착하고 조선 특유의 삶

과 멋이 스며있는 '인간'을 형상화하는 표현 형식을 완성해 내었던 풍속화의 선구적 위치를 차지하는 17세기말의 윤두서와 18세기초 조영석의 풍속화에 보여지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남녀 일반복식의 구성과 착용상태를 관찰하여 이 시대의 복식구조의 이해와 일반복식의 복식사적 특성을 밝히고, 이 시대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와 일반복식의 흐름을 파악하여 현재 착용되어지고 있는 전통한복 및 생활한복의 디자인 설정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지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참고 자료는 17세기말의 윤두서와 18세기초 조영석의 풍속화 중 인물화 19점을 선택하고 그 속에 등장하는 남자 45명, 여자 7명의 인물들이 착용하고 있는 의복을 중심으로 먼저 각각 인물의 착용의복 특성을 조사 분석한 후 이 시기의 일반복식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이론적 배경

조선시대의 일반복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효순은 여자복식<sup>5)</sup>의 경우, 저고리 길이가 초기에 허리선에 있던 것이 중후기부터 짧아져 1900년대 극도로 짧고 단소화 되며, 깃은 목판깃, 반목판깃, 당코깃, 등그레깃으로 변천하고 소매는 초기의 직배래 통수이던 것이 곡선배래로 변하고 넓은 끝동이 점차 좁아진다. 결마기는 초기에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것이 중후기부터 직선이 되며 위끝이 소매쪽으로 넓어지고, 넓은 아래가 넓은 삼각형이던 것이 점점 짧은 사다리꼴로 단소화된다.

치마는 길고 넓은 긴 치마와 두루치, 거들치마, 짧

은 통치마가 공존하며 여밈은 반상의 구별이 안되고 가문과 지방에 따라 다르다. 치마와 저고리의 확장미는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下厚上薄의 복식미를 창조한다.

남자복식<sup>6)</sup>의 경우, 저고리는 상하, 준비, 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착용된 기본복으로 초기에는 것이 완전히 길에서 내어 달린 듯한 목판깃으로 길쭉과 안쭉이 아주 넓고 결무도 넓으며 도련이 넓고, 중기에는 결무가 없어지고 목판깃이 당코깃으로 변하고, 후기에는 깃의 모양이 당코깃에서 둥그래깃으로 변화하며 길이는 대개 엉덩이까지의 길이로 소매는 걷어올리고 활동하기에 편한 정도의 길이와 폭을 가지고 있으며, 서민층에서 표의로 착용하는 반면에 양반층에서는 저고리 위에 항상 포를 입고 있다.

바지는 모든 남자들이 입던 하의로 시대변천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양반층의 바지는 폭이 무척 넓으며 바지부리를 끈으로 대님을 매거나 행전을 치고 있으며, 서민층은 바지폭이 양반보다 훨씬 좁으며 외출시 활등복에 있어 바지에 행전을 치며 일할 때에는 무릎길이 정도의 짧은 바지(잠뱅이)도 착용하였으며 허리띠를 허리부분에 매어주며 허리띠에는 일용품을 늘어차기도 하였다. 중치막과 소창의 등은 하류층의 표의로 착용되었으며 배자는 남녀 모두 착용한 평상복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박경자<sup>7)</sup>는 18세기 일반복식에 대하여 부녀자는 길이가 짧고 소매가 훌쩍하게 단소화된 저고리에 백색 속옷을 여러겹 껴입고, 길고 넓은 치마를 필요에 따라 볼륨과 음률이 있게 여며 입고, 큰 가체머리를 올려빚어 신분제에 따라 착의 자세와 의복 분위기를 창조하였으며 남자는 여유 있게 길고 험렁한 저고리와 바지 위에 도포, 중치막, 창의, 직령, 칠릭 등의 포를 신분에 따라 입고 계절에 따라 배자를 입고, 활동에 편리하게 바지에 행전을 매고, 상투를 올린 머리는 망건과 탕건에 양태가 넓은 흑립을 쓰며 여유 있고 호탕한 옷차림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나 천인 계층은 맨 상투머리에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행전을 맨 활동적이고 검소한 차림으로 계층의 규제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류회경<sup>8)</sup>은 서민복의 경우, 남자는 머리에 탕건과 비슷하나 턱이 없이 반듯하게 만든 감투를 쓰거나

평량자, 초립을 착용하며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하는데 남자저고리도 여자저고리와 함께 간소화 경향을 보이나 국발에 가서 어느 정도 다시 길어지고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바지는 궁고 형태에 사복을 댄 형태가 주류를 이루며 발목부위를 잡아매는 것이 기본이나 때로는 행전을 치기도 한다. 버선과 초리를 신으며 직령이나 첩리를 저고리 위에 착용하기도 하였다. 서민여자는 포제는 생각지도 못하며 저고리, 적삼, 치마, 바지, 속곳, 고쟁이, 짚신 등이 고작이며 쓰개도 장옷, 천의에 한하고 하숙배들은 치마자락을 바짝 치켜 여며 입어 속옷이 바깥으로 보이는 폭도 좁고 길이도 짧은 '두루치'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 2. 윤두서 작품

공재(恭齋) 윤두서(1668~1715)는 해남 윤씨 어촌은공파 후손으로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이며 정계에 서 소위된 남인계 재야 지식인으로 그의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작업이 있었기에 18세기에 조영석이나 다른 선비 화가들뿐만 아니라 화원에게까지 '속화'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었고 조선적 양식의 풍속화가 완성될 수 있었다.<sup>9)</sup>

그의 그림 중 민중 생활상을 담은 그림 여섯 점을 연구자료로 등장인물의 의복을 조사 분석코자 한다.

### 1) 속을 캐는 두 여인(探衣圖)

<그림 1>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앞쪽의 첫 번째 여자는 머릿수건을 머리에 둘러쓰고 있다. 저고리는 허리를 덮는 길이로 품은 몸에 잘 맞는 적당한 여유를 가지며 깃에 회장처리가 되어 있다. 저고리의 등술 구성선이 잘 나타나 있으며 소매는 착수형으로 소매통이 걷어올릴 정도의 여유는 보인다.

치마는 저고리보다 짙은 색으로 허리에 주름이 잡혀있으며, 노동의 기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걸어올려 허리춤에 끼워 넣어 주름이 옆에서 뒤로 드리워지고, 치마 길이가 무릎위치까지 걸어올려져 있어 정확한 길이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일상복으로 그다지 길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치마폭은 활동에 적합하도록 넓지 않아 보인다.

속바지는 통이 좁고 부리도 좁으며 치마 밑에서 겹으로 드러나 있다. 흰색버선과 혜를 신고 있다.

뒤에서 있는 두 번째 여자도 머릿수건을 머리에



<그림 1> 썩을 캐는 두 여인  
이태호 풍속화(하나) p.33

들러쓰고 있다. 저고리 길이는 허리를 덮는 정도로 몸에 잘 맞는 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 깃과 결마기에 회장처리가 되어 있으며 동정너비는 깃너비의 1/2정도로 넓으며 저고리의 등술 구성선이 잘 나타나 있다. 소매는 착수형으로 소매통은 걷어올릴 정도의 여유가 있으나 길이는 그다지 길지 않다.

치마는 옅은 색으로 첫 번째 여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복의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걷어올려 착용하고 있으며 치마폭은 활동에 적합하도록 넓지 않다.

속바지는 통이 좁고 부리도 좁으며 치마 밑에서 겹으로 드러나 있다. 흰색바선과 짙은 색 해를 신고 있다.

## 2) 짚신 삼는 노인

<그림 2>에서 짚신을 삼고 있는 노인은 머리에 상투를 틀고 있으며 저고리는 길이가 엉덩이를 덮으며 옆트임이 허리선 위치까지 있으며 깃 부분만 짙은 색으로 회장처리되어 우입으로 착용하고 있다. 저고리폭은 여유가 있으며 전체적인 느낌이 부드럽고 소매는 착수형으로 팔꿈치까지 걷어올리고 있다.



<그림 2> 짚신 삼는 노인  
이태호 풍속화(하나) p.36

바지는 무릎위로 걷어올리고 있으나 바지길이가 잠방이처럼 그다지 긴 형태는 아닌 것 같아 보인다. 발은 맨발이다.

## 3) 선거도(旋車圖) ; 목기깎기

<그림 3>에서 앞을 보고 앉아있는 왼쪽의 남자는 머릿수건을 머리에 쓰고 있다. 저고리는 엉덩이둘레 선까지의 길이로 옆트임이 있으며 깃을 다른 색으로 회장 처리하여 우입으로 착용하고 있다. 저고리 폭



<그림 3> 선거도(旋車圖)  
이태호 풍속화(하나)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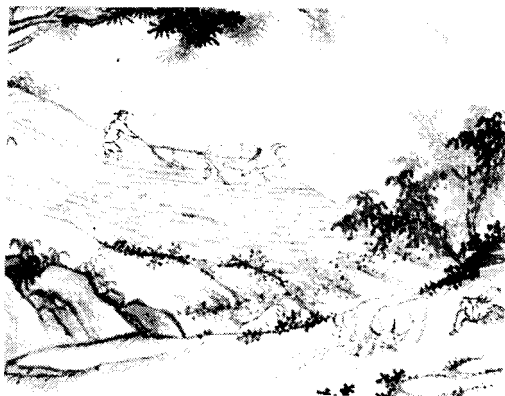
은 몸에 잘 맞는 정도의 여유를 가지며 소매는 착수형으로 팔꿈치까지 걸어올리고 있다. 바지는 궁고로 바지부리가 그대로 늘어뜨려져 발등 위까지 내려와 있으며 대넒과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발에 착용한혜는 앞 코부분이 위로 다소 올라 간 형태로 짙은 색을 띠고 있다.

측면으로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 오른쪽의 남자는 머리에 머릿수건을 두르고 있는데 옆모습이 탕건처럼 두 층으로 턱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고리는 엉덩이둘레선까지의 길이로 옆트임이 있으며 품은 몸에 잘 맞아 그다지 여유가 없으며 등속의 구성선이 잘 표현되어 있다. 깃은 짙은 색으로 회장되어지고 깃의 윗부분에는 동정 같은 흰색부분이 보인다. 소매는 착수로 걸어올리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바지는 궁고로 통이 좁으며 부리도 좁은데 발목 조금 윗부분까지 내려오는 길이를 나타내며 대넒과 같은 여밈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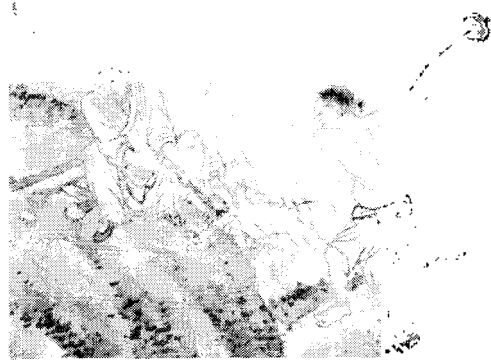
#### 4) 쟁기질과 목동

<그림 4>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는 남자는 머리에 차양이 있는 패랭이 같은 형태의 립을 쓰고 있다. 저고리의 소매는 착수형을 나타내며 길이는 엉덩이선까지 내려온다. 맨발이며 잠방이 같이 짧은 바지는 일하기에 편하도록 무릎선까지 걸어올리고 있다.

소 두 마리를 풀어 두고 누워있는 목동은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상하 모두 품의 여유가 적어 보이고 맨발 차림이다.



<그림 4> 쟁기질과 목동  
이태호 풍속화(하나) p.40



<그림 5> 돌 깨는 석공  
이태호 풍속화(하나) p.43

#### 5) 돌 깨는 석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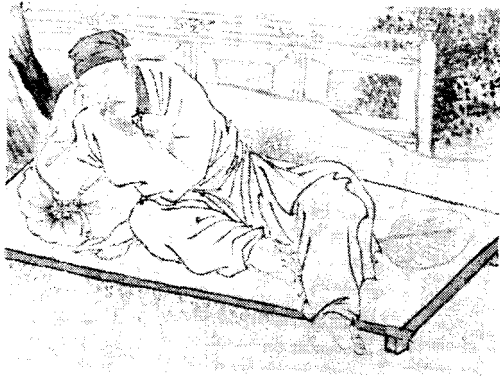
<그림 5>에서 왼쪽에 앉아있는 남자는 머릿수건을 복건처럼 위가 솟아올라오게 머리에 쓰고 있으며 엉덩이 길이의 착수형 저고리는 깃길이가 길어 깊게 감싸지는 우입으로 착용되고 소매는 견어올리고 있다. 바지 길이는 부리부분이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져 바닥을 끌 정도이며 바지 통은 다소 너른 형태이다. 발은 짙은 색의혜를 신고 있다.

돌을 깨려는 오른쪽 남자는 머리의 상투가 뒤통수 아래로 넘어가 있으며 저고리를 벗고서 일을 하고 있다. 바지는 앞에서 고찰하였던 짙은 삼은 사람처럼 품에 여유가 있으며 무릎길이 정도의 짧은 잠방이를 착용하고 있다. 바지허리를 끈으로 먼저 묶은 후 바지허리의 나머지 윗부분은 끈을 감싸면서 아래쪽으로 젖혀 넘어가게 착용하고 있다. 맨발이다.

#### 6) 낮 짐

<그림 6>에 누워있는 남자는 머리에 유건을 쓰고 포를 착용하고 있다. 포는 무릎을 덮을 정도로 길며 옆트임이 있다. 소매는 통수로 매우 길어 보인다. 깃을 다른 색으로 회장처리하며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입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바지길이는 발목까지의 넉넉한 길이로 바지 부리가 그대로 늘어뜨려진 형태를 하고 있으며 바지 통도 여유가 있는 형태로 맨발이다.



<그림 6> 낮 잠  
이태호 풍속화(하나) p.38

### 3. 조영석 작품

관아재 조영석(1686~1761)은 본관이 함안이며 노른계로 내외직 관료 생활을 했던 선비화가로서 시서(詩書)와 문장(文章)에도 일가를 이루었다.

그의 작업은 회화적인 형식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주변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선택하여 직접 실사하는 태도를 지녔다.<sup>10)</sup> 현존하는 그의 풍속화 중에서 13점을 연구자료로 등장인물의 의복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 1) 바느질

<그림 7>은 두 딸과 어머니의 바느질 모습을 그린 듯한 그림이다.

오른쪽의 어머니 같은 여자는 머리에 가체를 하고 있다. 저고리 길이가 가슴을 충분히 덮을 정도의



<그림 7> 바느질  
이태호 풍속화(하나) p.53

길이지만 두 딸보다는 짧은 편이며 1700년대 유물에 나오는 저고리의 길이와 비슷하다.<sup>11)</sup> 천을 자르기 위해 긴 소매를 한단 정도 걷어올려서 편안한 차림을 하고 있는데 걷어올렸을 때 드러난 안감의 색이 마치 거들지를 단 것 같아 보인다. 깃은 오늘날 저고리에 비해 다소 길며 칼깃으로 우입 형식으로 착용하고 있다.

치마의 허리말기는 흰색으로 아주 넓어 후기 짧은 저고리 밑에 드러난 허리말기처럼 저고리와 치마 사이에 드러나게 착용하고 있다. 저고리 보다 짙은 색의 치마는 두 딸의 치마보다 폭이 넓고 풍성하며 허리에서 주름을 좀 더 잡아 블록하면서도 길이가 더욱 길다.

딸과 같은 두 여자는 모두 바느질을 하고 있으며 머리는 출가전의 아가씨들로 뒤로 땡아서 묶여져 있는 모습이다. 왼쪽에서 한 쪽 무릎을 세우고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딸과 같은 여자는 치마보다 짙은 색의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으며 소매는 착수형으로 길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어 보인다. 치마는 어머니에 비해 치마통이 좁은 편이며 치마 아래로 맨발이 드러나 있다.

가운데에 꿰어 앉아있는 딸과 같은 여자의 저고리 형태는 둥근 칼깃으로 아래로 쳐져있지 않고 위에 달려져 있으며 우입 형식으로 착용하고 있다. 저고리 길이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저고리를 나타내며 따라서 삶이 크고 많이 감싸지는 형태를 나타내며 짧은 고름으로 여며져 있다. 소매는 착수형으로 소매를 걷어 올려 정확한 길이를 예측할 수가 없으나 보통의 저고리 소매 길이 정도로 보인다. 치마는 어머니에 비해 통이 좁아 보인다.

세 여자의 저고리는 모두 품이 몸에 잘 맞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며 옆선부분이 거의 직선으로 내려온 듯한데 이는 고복남<sup>12)</sup>이 언급하였던 1700년대는 저고리 변천의 한 기점으로 이전까지의 저고리는 결밑에서 밑단에 이르는 선이 밖으로 퍼져나갔는데 이 시기의 저고리는 모두 직선으로 내려갔거나 안으로 좁혀지는 형상으로 옆솔기가 처리되어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형태의 저고리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새 참



<그림 8> 새 참  
이태호 풍속화(하나) p.55

<그림 8>에는 농부들이 마주하여 새참을 먹고 있으며 6명의 남자와 1명의 남자어린이, 여자 2명이 등장한다.

어린이에게 새참을 먹고 있는 맨 왼쪽의 첫 번째 남자는 머리에 상투를 틀고 허리를 덮는 길이의 저고리에 많이 감싸는 우입 형식으로 칼깃 형태이다. 소매는 걷어올리고 있으나 처음부터 그 길이가 실용성을 위해 짧은 듯하다. 바지는 통에 다소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며 작업을 위하여 위로 걷어올린 듯하며, 바지 부리는 조금 더 좁아진 형태이다. 맨발에 신을 신고 있는데 다른 동료의 신 형태로 보아 노동 중이므로 짚신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등을 돌리고 있는 왼쪽에서 세 번째인 남자는 저고리 길이가 허리를 덮어주는 정도로 뒷모습에 등술의 구성선이 나타나 있으며 소매를 위로 걷어올리고 있으나 저고리 품이나 소매통이 그다지 넓지 않고 작업에 편할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바지는 무릎정도 길이의 짧은 바지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바지 부리 부분을 몸에 맞도록 말아주듯이 걷어올려 마치 다른 덧단으로 끝을 처리한 것 같아 보인다.

등을 돌려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있는 왼쪽에서 다섯 번째인 남자는 머리에 상투를 틀고 있으며 저고리는 허리를 덮는 길이의 다소 그림의 표현이 약화되어져 등술의 구성선을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형태 파악이 어렵다. 저고리 품은 몸에 잘 맞는 듯하며 소매는 걷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소매통에 여유가 있는 긴 소매이다. 바지는 앞에서 설명한 남자처럼 무릎길이 정도로 짧은 바지 같으며 맨발에 짚신을 신고 있다.

무릎을 세우고 새참을 들고 있는 오른쪽에서 네 번째인 남자는 머리에 상투를 틀고 있다. 저고리 깃

너비가 넓어 목을 많이 감싸고 있으며 동정너비는 깃너비의 1/3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마찬가지로 많이 감싸는 우입 형식으로 칼깃 같다. 저고리 품과 소매 통에 다소 여유가 있으며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올리고 있다. 바지는 걷어올리지 않았으며 무릎을 세워 바지 길이가 위로 끌려 올라가 있으나 작업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길이로 부리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 맨발에 짚신과 같은 것을 신고 있다.

완전하게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남자는 머리에 상투를 틀고 있으며 저고리는 허리를 덮는 길이로 품에 약간의 여유가 있고 소매는 진동부위에 여유 있는 착수형으로 늘어뜨리고 있다. 뒷모습에 등술의 구성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바지의 여유는 넉넉해 보이며 무릎 위까지 걷어올리고 있다.

머리에 갓을 쓰고 있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인 남자는 차림새를 보아 일을 함께 한 농부 같지는 않으며 새참을 들기 위하여 걸의 포를 벗어두었는지 저고리와 바지 차림에 머리에는 갓을 쓰고 있다. 저고리 길이는 허리를 덮는 정도이지만 저고리의 품은 넉넉해 보이며 진동부분의 여유도 많고 소매통도 넓은 편이다. 저고리 옆선에 트임이 있다. 바지도 앞의 농부들에 비해 여유가 있어 보이며 걷어올리지 않은 차림이다.

새참을 얻어먹고 있는 왼쪽에서 두 번째인 남자 어린이는 저고리가 허리를 덮는 길이로 저고리의 품에 여유가 많으며 깃너비도 넓은 편이나 소매길이가 팔꿈치를 덮는 정도의 짧은 길이이다. 바지는 걷어올리지는 않았으나 통이 좁은 형태이다.

정면을 보고 있는 왼쪽에서 네 번째인 여자는 머리에 가체를 올린 엷은머리를 하고 있으며 저고리 길이가 허리까지 오며 겨드랑이 밑에서 여며지는 정도로 많이 감싸는 우입형식을 하고 있다. 깃이 상당히 넓은 목판깃 형태로 이중깃인지 동정인지 확인하기 힘들지만 깃너비의 1/2위치에서 다른 구성선이 나타난다. 소매는 착수형으로 걷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치마는 저고리와 다른 짙은 색을 착용하고 있으며 치마폭은 풍성하지는 않으나 쪼그리고 앉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측면으로 앉아있는 오른쪽 끝의 여자도 머리에

가채를 올린 엷은머리를 하고 있으며 저고리 길이는 허리까지 오며 저고리 품과 착수형의 소매에 약간의 여유가 있어 보인다. 깃이 상당히 넓으며 특히 동정 너비가 1/2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있다. 치마는 저고리 보다 짙은 색을 입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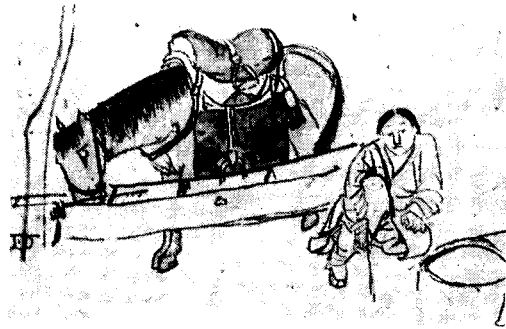
3) 수공선거도(手工旋車圖)

<그림 9>에서 한여름 나뭇가지에 옷을 벗어 걸어 놓은 채 선반작업을 하고 있는 두 장인은 모두 저고리를 벗고 바지차림으로 앉아 있다.

왼쪽에서 정면으로 보고 앉은 장인은 머리에 상투를 틀고 바지를 무릎까지 걸어올려 땀발로 작업에 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지가 걸어올려진 주름의 양으로 미루어 볼 때 바지통의 여유는 앞의 새참에서 등장한 농부들보다 넉넉해 보인다.

오른쪽에서 측면으로 앉아있는 남자도 마찬가지로 머리는 상투를 틀고 옷은 없으며 바지차림으로 허리부분의 표현으로 보아 허리에서 바지를 끈으로 묶은 후 윗부분의 여유분을 다시 아래로 접어 내린 오늘날 남자 바지의 여밈 모습과 유사하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옷은 그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모습으로 보아 옷웃인 저고리인



<그림 10> 말과 마동  
이태호 풍속화(하나) p.57

것 같으며 길이가 상당히 길어 보인다.

4) 말과 마동

<그림 10>의 마굿간에서 여물통 앞에 무릎 꿇어 주저앉은 마동은 혼인전의 남자 머리로 중간 가르마가 나타나게 빗은 후 뒤로 뚫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저고리 길이는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어서 그런지 엉덩이를 덮을 정도로 길어 보인다. 저고리 품도 넉넉해 보이며 깃이 길게 달려 있다. 소매길이는 길고 소매통의 여유도 있어 보인다. 바지는 바지통의 여유가 있어 보이며 발목부위에 행전을 찬 모습을 하고 있으며 버선을 신고 그 위에 짚신을 신고 있다.

5) 젖 짜는 어미소와 송아지

<그림 11>에서는 네 명의 남자가 모두 머리에 갓을 쓰고 바지, 저고리 위에 포를 입고 있으나 그림 작업의 시기로 보아 하급관료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



<그림 9> 수공선거도  
이태호 풍속화(하나) p.56



<그림 11> 젖 짜는 어미소와 송아지  
이태호 풍속화(하나) p.57



같으며, 혹은 실학사상이 등장하였던 당시의 배경으로 보아 경제가 나아졌던 평민들의 외출복 차림인 듯 하다.

송아지를 붙들고 있는 왼쪽에서 첫 번째인 남자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망건을 두른 머리 위에 갓을 착용하고 있으며 뒤로 젖혀지는 무가 달린 직령을 착용하고 있다. 직령은 옆트임이 있으며 밑단이 넓고 길이가 거의 발목길이에 가깝도록 길다. 세조대를 허리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매는 매우 넓은 광수형을 하고 있고 소매길 이도 길다. 포 밑으로 드러난 바지는 행전을 둘러 무릎아래를 감싸고 있다. 버선과 해를 신고 있다.

소고삐를 잡고 있는 왼쪽에서 두 번째인 남자 역시 머리에 망건을 두르고 그 위에 갓을 착용하고 있다. 바지, 저고리 위에 길이가 종아리에서 무릎사이 까지 내려오는 긴 포를 착용하고 있으며 갓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갓이 깊게 내려 달린 칼갓에 가까워 보인다. 세조대를 띠는 포는 관할 하지는 않으며 적당한 여유를 보이고 소매는 통수형으로 여유가 있어 보인다. 바지는 포 아래에서 행전으로 고정되어 살짝 드러나며 발은 버선과 해를 착용하고 있다.

소 젖을 짜고 있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인 남자는 머리에 갓을 쓰고 있으며 쪼그리고 앉아있는 작업의 편리성을 위하여 포의 뒷자락은 왼쪽으로 걷어올리고 있다. 포의 앞뒤자락 사이로 드러난 바지를 볼 때 옆트임이 있으며 소매가 통수형으로 넉넉한 것으로 보아 무의 유부는 정확하지 않지만 중치막 같아 보인다. 세조대를 띠고 있다. 옆트임 사이로 드러난 바지는 넉넉해 보이며 무릎 밑에 행전을 두르고 있다. 발은 버선과 해를 착용하고 있다.

소다리를 끈으로 잡고 있는 가장 오른쪽 남자는 머리에 갓을 착용하고 포를 착용하고 있으며 세조대를 띠어 생긴 포의 주름으로 정확한 무의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소매는 광수형으로 넓다. 포 아래에 보이는 바지는 행전을 두르고 있다. 발은 버선과 해를 신고 있다.

## 6) 작두질

<그림 12>에서 앉아있는 왼쪽의 남자는 머리에 범거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머리에 착용한 범거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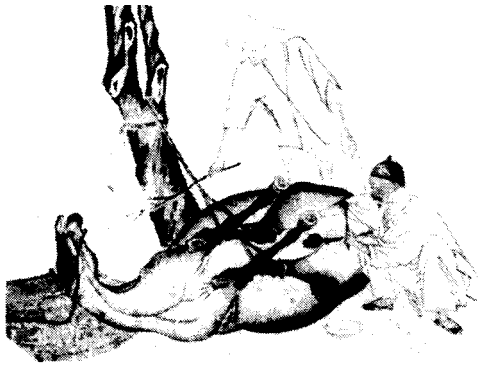


<그림 12> 작두질  
이태호 풍속화(하나) p.58

보아 상의는 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포는 작업의 편리성을 위하여 띠를 뒤로 돌려 등뒤에서 묶고 포의 길어도 '젓짜는 어미소와 송아지'에 나타난 포의 길이에 비해 조금 짧아 보인다. 갓은 칼갓 같으며 깊게 내려와 달려있다. 소매는 직배래의 착수형이지만 걷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소매통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바지는 무릎 밑에서 행전으로 두르고 있으며 발에는 버선과 해를 착용하고 있다.

서서 작두를 밟고 있는 오른쪽 남자는 머리형태에 상투가 없고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어린이 같으며 아직 머리를 뒤로 땀아 내리지 못한 짧은 길이의 머리 형태를 하고 있다. 저고리 길이는 허리를 덮는 엉덩이선까지이며 배자 밑에서 접혀있는 듯한 옷의 형태에서 저고리 품은 넉넉해 보인다. 저고리 갓은 어린이에 비해 상당히 깃너비가 넓다. 저고리 위에 배자를 입고 있으며 배자는 양겨드랑이 밑으로 긴 끈을 돌려서 앞에서 매어 매어는 착용을 하고 있으며 옆트임이 있다. 바지는 송아 그다시 넓지는 않고 길이가 발목까지로 발목 위아래 아무런 수림 처리를 하고 있지 않으나 바지 부리가 좁고 길이가 적당한 관계로 불편해 보이지는 않는다. 발에는 짚신을 착용하고 있다.

## 7) 편자 박기



<그림 13> 편자 박기  
이태호 풍속화(하나) p.60

<그림 13>은 요동하는 말의 움직임을 조절하여 앞발의 편자에 못을 박는 인물의 야무짐 표정과 동세에서 생동감이 넘치는 18C 초의 그림이다.<sup>13)</sup>

서서 나뭇가지로 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서 있는 남자는 머리에 방랍을 착용하고 있으며 위에는 반소매의 등거리를 입고 있는데 깃이 없고 앞여밂이 없어 가슴부분과 배 부분이 일부 드러나 있다. 길이는 허리를 덮을 정도이며 품은 여유가 없으며 소매는 직배래의 통이 좁은 형태이다. 바지는 통이 넓어 넉넉해 보이며 허리에 끈으로 묶은 후 뒷부분을 접어 넘긴 형태의 착장 상태를 보인다.

앉아서 편자에 못을 박고 있는 오른쪽 남자는 머리에 상투를 틀고 망건을 착용하고 있다. 저고리 길이는 허리를 덮어 엉덩이선까지 내려오며 품은 넉넉해 보인다. 소매통은 걷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깃너비는 저고리 전체 크기에 비해 좁은 편이다. 바지는 앉아있는 착장 상태에서 넉넉해 보이며 발목부위에 아무런 여밂 처리가 없으며 바지부리가 넓은 편이다. 맨발에 미투리를 신고 있다.

#### 8) 노승과 사미승

<그림 14>의 노승은 머리에 병거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양옆에서 끈이 내려와 턱 밑에서 묶여져 있다. 매우 넓은 폭의 포를 착용하고 있으며 목판깃이 겨드랑이 근처까지 감싸져 우입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소매는 광수형으로 매우 넓고 걸어들어야 손이 나타날 정도로 길어 그 형태가 승복의 한 종류인 장



<그림 14> 노승과 사미승  
이태호 풍속화(하나) p.62

삼<sup>14)</sup>형태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세조대를 매고 있으며 끈의 길이가 매듭 후에도 포의 길이만큼 늘어뜨려져 있다. 아래에 살짝 보이는 바지는 통이 넓으며 발목 부위에 대넒으로 맨 것 같은 블라우징 효과가 보인다. 맨발을 하고 있다.

북짐을 진 사미승은 허리를 덮는 길이의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으며 깃너비가 넓다. 바지 길이는 정강이 정도의 짧은 길이로 바지부리가 좁으며 전체적으로 여유가 많지는 않고 맨발에 쥘신을 신고 있다.

#### 9) 이 잡는 노승

<그림 15>의 나무 밑에 앉아 이를 잡고 있는 노승은 저고리와 포를 풀어헤치고 있으며 깃너비가 넓다. 앉아있는 그림이라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렵지만 저고리 길이는 허리까지이며 포의 길이는 발목정도로 길고 옆트임이 있으나 무의 유무는 알 수 없다. 소매는 통수형으로 길다. 발은 버선에 미투리를 신고 있다.

#### 10) 농경도

<그림 16-1>에는 여덟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림 16>은 아래쪽 그림을 일부 확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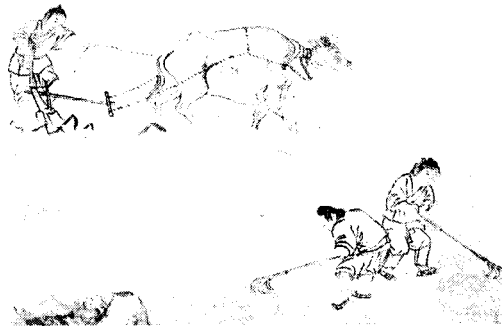


<그림 15> 이 잡는 노승  
이태호 풍속화(하나) p.59

것이다.

아랫쪽에서 소와 함께 쟁기질하는 농부는 머리에 상투를 틀고 있으며, 엉덩이선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저고리를 우임 양식으로 착용하여 고름을 매었으며 깃너비가 넓다. 허리에는 쟁기질에 편리하도록 끈을 앞에서 묶고 있다. 소매통은 걷어올릴 정도로 여유가 있으며 길이는 팔꿈치위로 걷어올리고 있으나 그다지 길지는 않다. 바지 역시 무릎위로 최대한 걷어올려 작업에 불편하지 않도록 착용하고 있다.

맨 아래에서 땅을 고르고 있는 두 사람 중 측면으로 보고 있는 왼쪽 사람은 머리 모양이 새앙머리 형태처럼 뒤에서 하나로 묶고 있는 형태로 보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남자 같아 보인다. 저고리는 작업으로 인하여 뒤길이가 위로 달려 올라가 있으며 허리를 덮는 정도의 길이로 그다지 넓지 않은 품에 통수인 소매를 걷어올려 착용하고 있다. 바지는 허리부분에 한번 묶은 후 위부분의 여유분을 다시 접어 내린 형태로 착용하고 있으며 바지길이는 작업을 위해 걷어 올린 형태이다. 맨발에 짚신을 신고 있다. 앞으로 향해 땅을 고르고 있는 오른쪽 남자는 머



<그림 16> 농경도 일부확대  
이태호 풍속화(하나) p.64



<그림 16-1> 농경도 전체  
이태호 풍속화(하나) p.65

리에 상투를 틀고 머리띠를 돌려 뒤에서 묶고 있다. 허리를 덮는 길이의 저고리는 깃너비가 넓으며 우임으로 착용하고 있다.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올리고 있으나 원래 길이가 그다지 길어 보이지 않는다.

바지는 허리에 끈을 둘러 묶고 있으며 앞부분에 남은 끈이 두 가닥 보인다. 허리 윗부분의 여유분은 다시 아래로 넘겨 내려져 있으며 무릎아래에는 행전을 두르고 있다. 맨발에 짚신을 신고 있다.

언덕 위 나무 그늘에서 농사일을 구경하고 있는 선비는 머리에 상투를 틀고 탕건형태를 착용하고 있다. 바지, 저고리 위에 폭넓고 긴 포를 착용하고 있으며 포의 등근깃 형태의 깃은 너비가 넓다. 소매통도 매우 넓으며 길어도 길어 보였다. 포 사이로 보이는 가부좌 한 모습의 바지는 정확한 형태 파악이 어려우나 일반 남자들의 바지형태와 같은 것 같아 보인다.

선비 뒤에 있는 시동은 상체만 일부 그려져 있는데 머리는 뒤로 묶어져 내린 것 같아 보이며 저고리는 고름으로 여며져 있다.

그 뒤에 보이는 낚시꾼과 함께 있는 아들은 머리를 뒤로 모아 묶어 늘어뜨렸으며 허리를 덮는 길이의 저고리와 행전을 두른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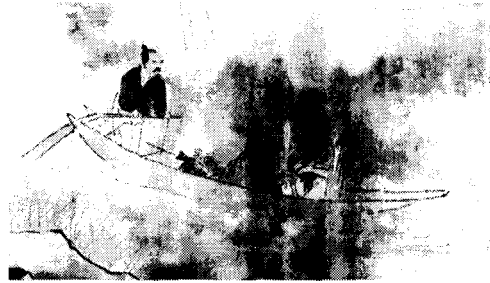
낚시꾼 모습의 남자는 머리에 초립을 착용하고 있으며 상의는 깃길이가 길고 우임 양식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상의길이가 허리를 덮는 정도이다. 머리에 착용한 초립으로 인하여 이 남자가 저고리만 착용한 것이 아니면 소창의 같은 포를 착용하고 앉자락을 뒤로 걷어올려 묶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바지는 행전을 무릎 아래에 두르고 있으며 바지허리를 묶고 있는 띠에는 술병과 같은 일용품이 달려 있다.

다리를 건너고 있는 지계를 진 남자 어린이는 머리를 뒤로 모아 묶고 있으며 허리 덮는 길이의 저고리와 무릎아래에 행전을 두른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 11) 선유도

<그림 17>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는 세 명의 남자 중 노를 젓고 있는 남자는 머리에 상투를 틀어 올리고 허리를 덮는 정도의 길이에, 착수형의 짙은 쪽색 저고리를 착용하고, 잠방이 같은 짧은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앉아 있는 두 남자는 모두 선비 같아 보이며 머리는 상투를 틀어 올리고 있으며 붉은 색과 흰색의 품이 넓고 광수형의 포를 입고 있으며 오른쪽 남자의 흰색포는 가슴 앞부분에 세조대를 매고 있다.



<그림 17> 선유도  
이태호 풍속화(하나) p.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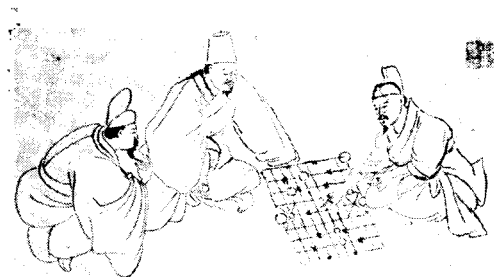
### 12) 장기도

<그림 18>에 나타난 세 명의 장기 두는 남자는 모두 포를 입고 있으며 포의 폭은 넓고 길이가 길다.

왼쪽에서 측면으로 앉아 있는 남자는 머리에 복두를 착용하고 있으며 포의 깃은 이중깃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허리에 넓은 폭의 포백대로 묶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길이를 조절하고 있다. 소매는 소매통이 매우 넓으며 소매 길이도 길어 보인다. 발에는 버선을 착용하고 있다.

가운데 앉아 있는 남자는 탕건과 비슷한 감투라는 머리쓰개를 착용하고 있으며 깃너비가 넓은 칼깃형태로 보인다. 소매통도 넓고 소매길이가 길다. 가부좌한 바지의 통도 넓어 보이며 버선을 신고 있다.

오른쪽에 앉아 있는 남자는 머리에 복두를 착용하고 있으며 넓고 긴 목판깃의 형태가 우임 형식으로 착용되어 있다. 포의 옆선에 트임이 있어 옆트임 사이로 바지가 보이며 소매통은 세 사람 중 가장 좁



<그림 18> 장기도  
이태호 풍속화(하나) p.68

으나 걸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어 보인다. 바지통은 매우 넓어 보이며 바지부리는 좁아 보인다. 발에는 버선을 신고 있다.

### 13) 설중방우도

<그림 19>에서 방안에 앉아 있는 두 사람 중 정면을 보고 있는 왼쪽의 남자는 유생처럼 심의에 검은색 복건을 착용하고 있으며 마주 보고 있는 측면으로 앉은 오른쪽 손님 남자는 어깨와 등까지 덮어주는 방한모인 휘항(揮項)을 쓰고 그 위에 갓을 착용하고 있다. 측면으로 보이는 포는 도포처럼 보인다.

마당에 있는 두 명의 시동은 모두 머리를 뒤로 모아서 묶고 있으며 바지, 저고리 차림을 하고 있다. 소를 끌고 들어오고 있는 남자 어린이는 엉덩이선까지 길이의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으며 옆선에 트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매통은 좁아 보인다. 바지는 무릎아래에 행전을 두르고 있으며 짚신을 신고 있다.

정면을 향하고 있는 남자 어린이는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착수형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으며 목판 깃은 넓어 보인다. 바지는 통이 넓지 않으며 무릎아래에 행전을 두르고 있다. 발은 버선에 짚신을 신고 있다.



<그림 19> 설중방우도  
이태호 풍속화(하나) p.69

## IV. 결 론

17C말~18C초 윤두서와 조영석의 풍속화 작품 19점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들을 고찰한 결과 풍속화 속에 나타난 일반복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여자복식은 머리 모양의 경우, 미혼녀는 머리를 뒤로 땅아 내리고 있으며, 출가녀는 머릿수건을 두르고 노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혹은 가체를 사용한 엷은머리를 하고서 일을 하고 있다.

저고리 길이는 크게 허리를 덮는 길이·허리길이·허리선 보다 조금 짧은 길이를 나타내고 있어 1700년대의 유행과 저고리 길이와 비슷하며 대체로 옆선이 직선을 나타내어 품이 몸에 잘 맞는 적당한 여유를 나타내고 있다. 간혹 등술선의 구성선이 그림에 표현된 것도 있다. 깃은 넓은 형태로 목판깃이나 칼깃 형태를 나타내나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 깃머리 형태를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 적으며 간혹 깃 부분에만 회장처리가 되어 있다. 소매는 착수형이며 노동 중의 그림이 많아 대부분 걸어올리고 있으며 소매통은 걸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 저고리 여밈은 우입형식을 나타내며 대체로 많이 감싸지는 형태를 나타내지만 여밈 처리방법은 그림에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우며 정확하게 표현이 된 것에는 짧은 고름으로 여며져 있다.

치마는 저고리보다 짙은 색으로 표현된 것이 많으나 간혹 옅은 색 치마도 나타난다. 실외의 밭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치마를 앞으로 걸어올려 허리춤에 차고 있어 치마길이가 무릎 가까이 올라가 있으며 실내나 실외에서 앉아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치마길이가 바닥에 끌려 정확한 길이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풍속화의 특성상 일반민중의 생활상을 그린 작품이 대부분이므로 대체로 그다지 길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마통은 대부분 넓지 않으며 허리 맡기가 드러나 바느질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만 다소 풍성한 느낌이 보인다.

속바지는 걸어올려진 치마 밑으로 드러나며 바지통과 바지부리가 좁다. 버선을 착용한 경우는 대체로 해를 신고 있으며 맨발인 경우는 맨발 상태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치마 속에 가려져 알 수가

없다.

둘째, 남자복식의 경우 참고 자료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 일반 백성이 24명, 사대부 또는 하급관료 등이 10명, 노승 또는 사미승 3명, 시동이나 동자 등의 어린이가 8명이다. 이들의 복식에 관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일반 남자의 경우 모두 머리를 상투로 틀어 올려서 그대로 혹은 머릿수건, 방립, 망건, 머리띠, 탕건 등을 착용하고 있다.

저고리 길이는 윤두서 그림에서 영당이선에서 영당을 덮는 길이었던 것이 조영석 그림에서 허리를 덮는 길이로 짧아져 나타난다. 깃은 대체로 깃너비가 넓고 깃길이가 길며 칼깃의 형태도 나타나고 간혹 깃 부분에만 확장처리가 되어져 있다. 여밈은 모두 우입형식을 나타내며 정확하게 살필 수 있는 것에는 고름으로 여며져 있다. 저고리 품은 몸에 잘 맞는 적당한 여유를 나타내며 옆트임이 있는 저고리 형태도 나타났다. 소매는 대부분 착수형에 직배래로 견어올려서 착용하고 있다. 그밖에 등거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난다.

바지는 잠방이 형태의 짧은 바지나 견어올려 무릎 정도 길이로 착용하고 있는 형태가 많으며 늘어뜨린 경우의 바지를 살펴보면 대체로 궁고형으로 바지통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 바지 부리의 여밈 방법은 들판과 같은 바깥에서 일하는 경우 견어올린 것이 많으나 실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늘어뜨린 것이 많으며 간혹 행전을 띠고 있다. 대부분 맨발이 많고 신을 착용하는 경우 짙은 색의 해나 짙신을 착용한다.

셋째, 사대부나 하급관료 등의 경우 머리모양은 상투를 틀고 그 위에 유건, 망건에 갓, 탕건, 복두, 감투, 복건, 휘황에 갓 등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바지, 저고리 위에 포를 착용하고 있다. 포의 길이는 무릎을 덮는 길이에서 발목까지 내려오며 옆트임은 있는 것·없는 것·형태파악이 힘든 것 등으로 구분되고 무의 경우는 뒤로 젖혀지는 것·형태파악이 힘든 것·없는 것 등이 나타났다. 대부분 세조대를 가슴부분에 둘러 묶고 있으며 폭 넓은 포백대도 나타났다. 깃은 넓으며 정확한 깃머리 모양을 확인하기 힘들지만 그림표현이 정확한 것에는 칼깃 형태가 나타나며 간혹 깃을 확장처리 한 것도 있다. 소매

는 광수형과 통수형이 대부분이며 소매길이는 대체로 길다. 포 밑으로 드러난 바지는 일반 백성보다 바지통이 넉넉하며 무릎 아래에 행전을 띠고 버선과 해를 착용하고 있다. 그밖에 형태가 구분되는 포의 종류로는 삼의, 직령, 중치막, 도포 등의 형태가 보인다.

넷째, 동자, 시동 등의 어린이의 복식은 먼저 머리모양이 짧거나 뒤로 겨우 묶여지는 형태를 하고 있다. 저고리는 허리에서 영당이선까지의 길이가 보이며 저고리 품은 어른에 비해 넉넉하며 옆트임이 있는 저고리도 보인다. 소매는 통수 형태로 길이는 짧은·긴소매가 모두 나타난다. 배자를 저고리 위에 착용한 모습도 보이며 배자는 옆트임이 있고 끈을 뒤에서 돌려 가슴 앞에서 묶고 있다. 바지는 통이 그다지 넓지 않으며 그대로 발목까지 내린 채로 입거나 행전을 띠고 있다. 발은 맨발 또는 짙신을 착용한다.

다섯째, 노승과 사미승은 저고리는 허리를 덮는 길이이며 그 위에 포를 착용하고 있는데 발목길이 정도로 길며 우입으로 착용하고 있다. 깃이 넓고 장삼과 같은 포는 광수형으로 세조대를 두르고 병거지와 함께 착용하고 있고 또 다른 포는 옆트임이 있으며 무의 유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통수형으로 소매가 길다. 바지는 대님으로 여미고 있으며 맨발에 짙신을 착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윤두서와 조영석의 작품속에 나타난 복식형태를 미루어 추측컨데 17C말~18C초 조선시대 일반 복식의 특징에 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정된 작품수는 조선시대 일반복식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흡하나마 이러한 조사 결과가 한국복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새로운 디자인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참고문헌

1. 양숙향, 김용서, 조선후기 여자 일상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실학자의 복식관과 풍속화를 중심으로-, 복식, 39, 167-179, 1998.
2. 박경자, 해원 풍속화에서 본 18세기의 일반복식,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341-354, 1982.

3. 조효순, 조선조 풍속화에 나타난 여자의 기본복식연구(Ⅰ)-치마, 저고리를 중심으로-, 한복문화학회, 1(2), 13-33, 1998.
4. 조효순, 조선조 풍속화에 나타난 남자의 기본복식연구(Ⅱ), 한복문화학회, 2(1), 21-36, 1999.
5. 조효순, 앞논문(3).
6. 조효순, 앞논문(4).
7. 박경자, 앞논문(2).
8.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9. 이태호, 풍속화(하나),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96.
10. 이태호, 앞책.
11. 고복남, 출토복식·여복,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297-322, 1982.
12. 고복남, 앞논문.
13. 이태호, 앞책.
14.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15. 김승자, 조효순, 조선시대 기녀복식이 여자복식에 미친 영향-풍속화와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복문화학회, 2(1), 145-152, 1999.